

'3퇴'와 평안

제 349기 2018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26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2,298만 명

대만에 온 텐진 관광객, “나는 두렵지 않다! 탈퇴하겠다!”

[명혜망] 2018년 12월 중순, 대만 국부기념관의 파룬궁(法輪功,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생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오고 가는 여행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텐진 여행객, “두렵지 않다! 탈퇴한다!”

키가 크고 건장한 리 선생이 여행단을 따라 파룬궁 진상점에 와서 한 파룬궁 수련생에게 말했다. “파룬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당신보다 많이 알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 쪽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박해도 우리 쪽에서 시작됐죠. 텐진!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파룬궁 수련생은 즉시 리 선생을 안내해 ‘4·25 평화 상방’ 대형 전시판을 보게 했다. 찬찬히 읽던 그는 큰 소리로 일행들을 불렀다. “빨리 빨리 와서 보세요. 텐진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보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정보는 아주 빨라요. 많은 것들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행이 둘러서서 그 전시판을 주시했다. 이어서 파룬궁 수련생이 ‘삼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하자 몹시 긴장한 일행이 그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는 담대하게 말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탈퇴해요!”

리 선생이 또 물었다. “대만에서 파룬궁 수

련은 합법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련해요?” 파룬궁 수련생은 그에게 파룬궁 수련이 대만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는 아주 감격한 목소리로 주변의 일행에게 말했다. “봐요! (중공이) 만약 (파룬궁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순탄하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공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연공을 하고 신앙을 가지게 해도 아무 일 없잖아요. 사람에게 신앙이 있고 정신적으로 귀의할 곳이 있으면 다투지 않고, 명리를 담담하게 여기고, 도덕이 고상해지는데, 그거야말로 제일 좋은 거예요. 나도 부처를 수련해서 알아요.”

그때 파룬궁 수련생은 여행단 사람들의 ‘삼퇴’를 도왔다. 떠나기 전, 리 선생의 부인이 수련생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파룬궁 여러분의 말을 들어요!”

안내원, “파룬궁을 선허게 대하세요.”

한 여행객이 안내원에게 물었다. “파룬궁은 위법 아닌가요? 여기서는 정부가 잡아가지 않나요?” 안내원이 그들에게 말했다. “대만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파룬궁이 합법적이에요. 그들이 자기 단체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합법적이에요. 여



파룬궁 진상을 확인하는 대륙 여행객

러분 국가나 개인이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모두 존중해야 해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한번은 제가 산시의 감옥에서 일하는 분을 안내했는데, 제가 그 녀한테 말했어요. 국제사회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생)을 양심수, 사상범이라고 하는데, 나쁜 일을 안 했고, 모두 아주 선량하고, 무고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능력 범위 안에서 마땅히 돌봐줘야 해요. 조금만 따뜻하고, 약간만 배려해도 모두 좋아요. 그 분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도 이 사람들이 모두 아주 선량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친구 가족 12명이 모두 ‘삼퇴’하다

[헤이룽장 투고] 나의 오랜 친구 한 사람은 올해 85세인데, 중공이 정권을 탈취하기 전에 중공 사당의 조직에 가입했고, 중공의 세뇌를 심하게 받았다. 그는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반대를 했고, 일순간 그와 나의 관계가 경직되었다. 나는 여러 차례 그의 집으로 찾아가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택시에 치였는데, 순간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땅에서 위로 던지는 것 같았다. 나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일어났겠는가? 이걸 또 3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

3년 전에 나는 뇌경색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어 반신불수가 되었다. 곧 70세였던 나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려 해도 펴수가 없었다. 이전에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배우지 않았는데, 막다른 곳에 와서야 파룬따파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룬따파를 배운 후, 아주 많은 도리가 분명해졌고, 나의 마음은 마치 창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 같았다. 모르는 세에 나의 몸에서는 기적이 나타났다. 나는 아주 빨

리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으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희열을 느꼈고, 틈만 나면 나가서 산책을 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 어떻게 좋아졌느냐며 물었고,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을 연마해서 나왔다고 말해주었다.

다시 나를 친 택시 기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놀라서 낮이 나간 듯했고, 서둘러 5백 위안을 꺼내 나에게 주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 했다. 나는 즉시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은 가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됐고, 속이는 것도 아닌데, 돈을 안 받겠다고요?” 내가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다치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는 데, 돈을 받아서 뭘 하겠어요?” 나는 둘러서서 보던 사람 중에 그 친구의 며느리가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 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튿날, 나는 또다시 친구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 그는 뜻밖에도 문을 열고 나에게 물었다. “자네 처인 데는 어때? 병원 검사는 왜 안

받고, 우리 집에는 어떻게 왔어? 넌 정말 어리석어. 5백 위안을 주는데도 안 받았으니 나중에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가서 그 기사를 찾겠어!” 그는 나에게 알려주었다. “자네가 그렇게 여러 번 왔지만, 나는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었는데, 자네가 차에 치이고도 돈을 안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야.”

그때부터 나는 늘 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말해주었다. 그의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듣고, 파룬궁 진상 자료도 봤다. 반달 후 어느 날 영감네 며느리는 허벅지에 있던 깊은 종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2년 동안 그 종기에서는 고름이 흐르면서 낫지 않고 통증이 심했다. 어떻게 갑자기 나았을까? 며느리가 몹시 궁금해 하자 그 친구는 며느리에게 파룬궁이 치료해준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정말 그렇게 신기했다!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목격한 친구는 주동적으로 탈당을 했고, 온 가족 12명도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죄악에 세계의 관심 집중

[명혜망]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죄악이 해외에서는 '지구상 전대미문의 사악'으로 불린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일'에 캐나다 국회는 강제 장기적출을 겨냥한 S-240 법안에 대해 제2독회(二讀)의 두 번째 변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240 법안〉을 발의한 보수당 국회의원 가넷 제너이는 11월 20일에 열린 첫 번째 변론 중에 말했다. "두 명의 유명한 캐나다인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가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병원에서는 매년 6만에서 10만 건의 인체 장기이식이 진행되는데, 그 속에는 기증된 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장기의 출처는 양심수, 주로 파룬궁 수련생이었습니다."

● 2018년 12월 2일, 파룬궁 박해 추적 조사 국제조직(추사국제)은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실태와 관련한 최신 조사보고서와 17개의 전화 조사 녹음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공이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보고서가 밝힌 내용은 이렇다. 1. 추사국제 명단에 오른 병원과 의사들은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 2. 1~2주 내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

● 2018년 12월 8일, '중공의 이식 남용 중지 국제연맹' 주도로 설립된 '독립인민법정'은 런던에서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3일 동안의 공청회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문제를 겨냥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독립인민법정'의 모든 구성원은 12월 10일, 임시 판결문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공포했다. 초안은 범죄자와 양심수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량의 사실로 증명된 것은 2006년 3월, 중국 라오닝 선양 쑤자툰 사건이 폭로된 후 10년이 넘는 동안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악이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체 적출을 통한 장기 이식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육체적으로 살해하는 수단이 되고, 집권자의 보건 복리가 되고, 외국 정계 요인과 유명 화교의 본국 가족을 위한 통일 전선 도구가 되었으며, 병원과 의사에게는 밀천 없이 횡재하는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중공은 지금까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파룬궁 수련생이 대부분인 양심수의 장기를 필요에 따라 대량으로 약탈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는 바, 이것이 중공의 거대한 이식산업에 떠받치는 진정한 장기 공급원이다.

생체 장기적출은 일말의 양심도 없고, 인간성을 완전히 저버린 죄악이며,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악이다!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이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 학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일말의 양심도 없고, 인간성을 완전히 저버린 경천동지할 이 죄악을 빨리 끝내고, 인류에게 합당한 존엄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 소녀, “저는 텐안먼 분신자살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대륙 투고] 어느 날, 나는 한 무리 소학생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내가 말했다. “너희들은 파룬파파가 좋다는 걸 알아? 파룬파파는 파룬궁이라고도 해.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거의 세계 각국이 모두 파룬궁을 배우게 하는데,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못 배우게 해. 너희들 5학년 ‘품덕과 사회’ 교과서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 ‘텐안먼 분신자살’은 가짜야. 그건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패거리가 지어낸 거야. 이모가 바로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인데, 이모는 좋은 사람이야. 공산당은 이모 같은 좋은 사람을 수없이 죽여서 죄악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불(神佛)이 공산당을 소멸할거야. 공산당은 공산당원, 공청단원과 소선대원으로 이루어진 거야.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좋은 사람이 말려들지 않도록 이모가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권하는 거야. 너희들같이 어린 사람은 더더욱 공산당을 따라 재수 없는 일을 당하면 안 돼. 너희들은 소선대를 탈퇴해야만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아이들은 모두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

여 소선대를 탈퇴했다. 그때 예쁜 소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텐안먼 분신자살’은 가짜예요. 저도 알아요!”

그 아이 집의 어른들도 진상을 아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물었다. “아빠는 어디에서 일하셔?” 소녀가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공안국에서 일해요.” “아빠 이름이 뭐야?” 소녀가 말했다. “모모모예요.” 나는 그 말이 진실하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인데, 수 년 전 나는 한 친척 집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고, 방화벽 돌파 프로그램을 주면서 인터넷에서 더 많은 파룬궁 진상을 알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모두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을 탈퇴하도록 알려주라고 말했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동의했다.

현재 소녀의 아버지는 이곳의 한 파출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그가 오기 전, 이 파출소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현지의 몇몇 파출소 중에서 가장 심했고, 경찰 몇 명은 사악하기로 유명했다. 소녀의 아버지가 부임한 후 파룬궁 수련생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

았다. 그 파출소 관할의 많은 사람은 마음씨 선량한 좋은 소장이 온 것을 기뻐했다.



● 중앙 텔레비전 초점방담의 분신자살 화면 속에는 의사가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류쓰잉이 있다. 의학 상식에 따르면 수술 후 많은 날을 보내야만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후 4일 만에 류쓰잉은 낭랑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노래까지 부를 수 있었다. 기자가 격리 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인터뷰를 했으니 의학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